

미래가치의 실현을 위한 더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지원센터로

— CTL 소장의 한마디

특집

양 호 환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양호환입니다.

벌써 단풍을 완상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대 캠퍼스는 봄에도 온갖 꽃들로 화려한 성장(盛裝)을 하지만, 가을이 되면 고운 단풍빛으로 수려함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함께 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CTL은 그 동안 꾸준히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개발하여 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교수님들과 강사님들, 교직원, 조교, 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 강의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교수법 워크숍, 예비교수자 양성 과정,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자료 제작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학위논문 작성법과 이공 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영어논문 작성법 워크숍, 리포트 상담, 글쓰기 워크숍 등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시스템이 다소 불안정하였던 eTL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불편을 끼쳐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주시고 해결방안에 관해 조언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학기마다 eTL 접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교수들의 집담회를 통해 강의의 개선 방법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교수와 학생이 함께 만나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수와 학습에 대한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종합 연구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이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CTL은 이러한 강의식 수업에서 탈피할 방법을 단선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강의식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효율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전공과 주제별로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본분은 연구와 교육에 있고 이것이 대학 경쟁력의 기본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명백합니다. 수업은 가르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수업에 익숙해진 나머지 자칫하면 매우 정형화될 수 있고 Feed back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내구성원들이 강의촬영 및 분석과정이나 우수 강의 동영상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 역시 고등학교 때까지 수동적인 입장에서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에 익숙해진 나머지 대학의 토론식 수업이나 스스로 주제를 잡아 리포트를 작성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거나 낯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 능동적인 학습참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CTL은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개발하여 운영할 생각이고 교수와 학생은 물론 교직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그 내실을 따져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 프로그램별로 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수요자에게 꼭 맞는 내용을 선별하겠습니다.

정치가 현재를 다루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연구와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미래가치를 담보하고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짊어지고 있고 항상 현재에 안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변화와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은 기본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대학이 연구와 교육을 위한 지원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CTL은 앞으로도 교육을 통한 미래가치의 실현을 위해 더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대학 내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양 호 환